

치 사

생명의 소리가 충만한 이 봄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여러 사부대중을 모시고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과 불교문예 신인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신흥을 보면 산하대지 두두 물물이 모두가 부처인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나와 남이 없고 천지와 더불어 하나의 생명이라는 법계의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처를 찾아가는 길, 그것은 분열과 차별이 없어진 원융 무애한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까지도 파괴하여 결국에는 자멸하는 무명의 업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 인류는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집단, 더 나아가 국가 대 국가 간에 극단적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인간성이 파멸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 그리고 자연재앙은 인간생명은 물론 자연의 생명도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종교와 문학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문학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존중사상을 문학을 통해 승화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의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부문 공광규 선생, 시조부문 유자효 선생, 소설부문 송기원 선생, 평론부문 방민호 선생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 네 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높은 경지의 문학

적 성과를 이루어 낸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현대불교문학상’은 작가 개인의 종교와 문학이념을 넘어 수여하는 상으로, 그동안 명망 있는 문학가를 수상자로 배출하면서 어느덧 한국문학계의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문학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대불교문인협회 수완 스님, 혜관 스님, 로담 스님을 비롯한 계간불교문에 관계자분들과 이근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5년 4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